

# 책으로 먼저 뚫린 금강산 가는 길

사진집·설화·기행문 등... 새로운 시각 담은 책들 기대

출판계에도 금강산 유람길이 뚫렸다. 이달 하순부터 금강산 관광이 가능해지자, 때 맞춰 서점 진열대에는 금강산 관련서가 붓물 터진 듯 쏟아졌다. 시기에 맞춰 이전에 나온 내용을 새롭게 고치거나 최신 정보를 담은 책까지 그 종류도 다양하다. 지금까지 나온 금강산 관련 책들은 모두 30여종. 이 책들은 ▲금강산의 외형적 모습을 담은 지형도·사진집 ▲금강산의 내면적 문화유산을 담은 각종 시집·화집·설화집 ▲주로 해방 이전에 씌어진 기행문 등 3종류다. 해방 이후 북한에서 나온 금강산 안내서나 해외 교포, 외국인이 쓴 기행문도 나와 있다.

## 금강산 안내의 1차 자료가 대부분

최근 출간된 금강산 관련서들 역시 이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옛 자료에 근거해 평면적으로 서술하던 것에서 벗어나 현재의 상황과 연결지어 금강산에 좀더 가깝게 다가설 수 있도록 입체적으로 꾸미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책은 유홍준이 엮은 《금강산》(학교재)이다. 이 책은 가장 최근에 금강산을 다녀온 국내 필자들의 경험을 토대로 썼다. 또한 사진자료 역시 북한에서 출판된 것이나 해외동포·외국인이 찍은 사진이 아니라, 필자들이 직접 찍은 사진이라 생생하다. 이 책은 금강산의 역사와 지리학 등 외면적인 모습, 금강산의 문화유산과 설화 등 내면적인 모습, 금강산 탐승코스 안내와 각종 기행문 등 여행기적인 모습까지 모두 갖추고 있어 이제까지 나온 금강산 관련 서적의 종합판이라 할 수 있다.

《금강산은 부른다》(조선일보사) 역시 이와 비슷한 종류다. 이 책은 《금강산》과 마찬가지로 금강산에 대한 종합적인 소개 외에도 관광수속·준비물·금강산 관련 노래까지 수록했다. 금강산 전 구역을 생생하게 볼 수 있는 원색조감도도 눈에 띈다.

이들 책이 금강산에 대한 총론을 다루고 있다면, 각론을 다룬 책들도 많다. 먼저 최근에 나온 기행문으로는 《외유록(臥遊錄)》을 토대로 한 《1485년, 금강산에서》(지식공작소), 울곡 이이의 《풍악행(楓嶽行)》을 근거로 한 《울곡선생의 금강산 답사기》(이화문화출판사), 이광수의 《금강산유기》(실천문학사),

역대 금강산 기행명문을 엮은 《선인들과 함께하는 금강산 기행》(인화)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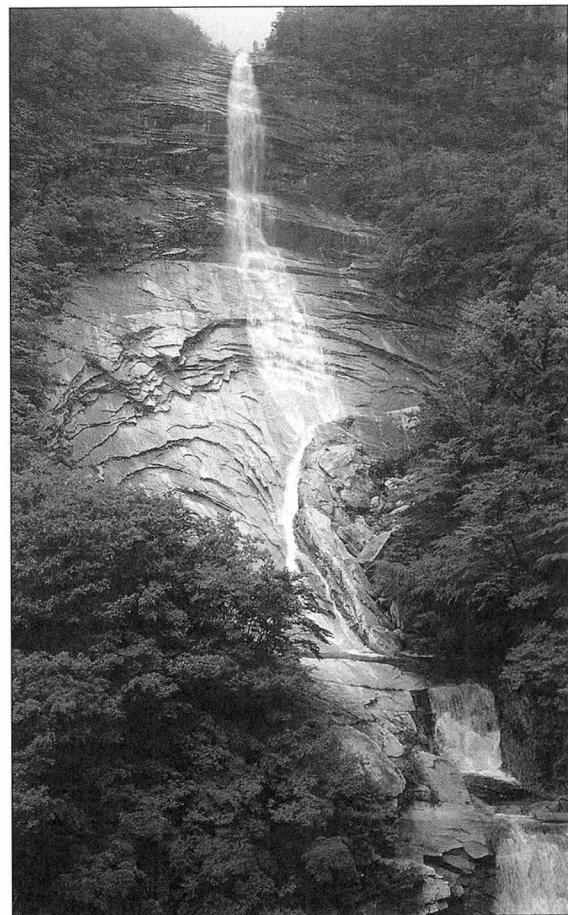
신명호 등이 지은 《1485년, 금강산에서》는 그 체제가 특이하다. 기본적으로 추강 남효온의 금강산 유람기를 밑바탕에 두고 있으나, 옮기는 과정에서 역자가 기행글 속에 직접 참여한다. 글 속의 '나'는 바로 옮긴이를 뜻하는데, '나'는 남효온과 금강산이라는 이름에 갖든 불교적 세계관에 대해 논쟁하기도 하고, 금강산의 수려한 산수를 두고 남효온보다 후세 사람들인 정철이나 박두진의 시를 떠올리기도 한다. 그 결과 이 책은 남효온의 금강산 유람기면서 동시에 그의 유람기를 뛰어넘어 조선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금강산을 인식했는지 보여준다. 《울곡선생의 금강산 답사기》(정향교 역해)는 6백구 3천자에 달하는 장편의 오언고시 《풍악행》을 해제와 함께 옮겨 실었다. 이 책에는 울곡이 쓴 시 외에 울곡이 단 주석, 역자가 쓴 해설, 이병주의 회고담을 근거로 한 금강산 이야기, 금강산 기행문의 역사 등도 사진 자료와 함께 수록돼 있다.

《금강산유기》는 춘원 이광수가 1922년 문예지 《신생활》에 연재해 1924년 시문사에서 처음 단행본으로 나온 책으로 그간 여러차례 나왔으나, 이번 금강산 여행을 계기로 한 문투를 고쳐 현대감각에 맞게 꾸몄다. 이 책에서 춘원은 기행글과 함께 자신의 감회를 시조로 풀어놓아 이색적이다. 6·25 전쟁으로 금강산의 문화유산이 파괴되기 이전에 쓴 기행문이면서도 한문이 아니라, 우리말로 씌어진 기행문이라는 데 그 가치가 있다. 《선인들과 함께하는 금강산 기행》(정우영 엮음)은 이러한 기행문들을 모아놓은 책이다. 현존하는 최고의 금강산 유람기인 이곡의 《동유기》에서 문일평의 《금강산의 절승구룡폭포》에 이르기까지 역대 기행문 중 명문만 뽑아 실어 이땅의 문인들이 어떻게 금강산을 통해 자신의 글솜씨를 뽐냈는지 살필 수 있게 했다.

## 새로운 각도에서 다룬 책이 나와야

금강산이 단순한 산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정신적 문화유산이라는 것은 금강산을 둘러싼 각종 일화와 민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래서 금강산 관련 일화·민담집 역

만물상·마하연·만폭동·보덕암·비로봉·이제 그 이름이 낯설지 않은 금강산의 풍광을 책으로 먼저 만난다. 서점가에는 민족의 영산 금강산 관련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현재성에 맞게 새로운 정보를 담은 금강산 책의 출간이 과제로 떠올랐다.



금강산 4대 탐승명소인 비룡폭포 (사진 유홍준 <금강산> 중.)

시 많이 출간됐는데, 최근에 나온 것으로는 《금강산이야기》(문원북)와 《옛날옛적 금강산에》(대교출판)가 있다.

원래 1992년 북한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에서 펴낸 《금강산이야기》(원제 《금강산 일화집》)는 금강산 관광안내원들을 위한 자료집의 목적으로 위인들에 얽힌 금강산 이야기를 모아놓은 책이다. 금강산하면 늘 떠오르는 인물인 김시습·양사언·김삿갓·마의태자·정철 등이 금강산에서 겪은 일화들을 소개한다. 대개는 문헌에 전해오는 실화지만, 때로는 신비스럽게 재구성된 부분도 있어 금강산을 영험한 산으로 대했던 우리 선조들의 마음가짐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옛날 옛적 금강산에》(김광호 지음)는 금강산을 낯설어하는 어린이들을 위해 만든 이야기책이다. 명경대·비로봉·천선대·온정리 등 금강산 명소 곳곳에 얽힌 신기하고 재미있는 이야기 24가지를 담아 노래로만 접한 금강산을 어린이들도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책에는 양사언의 죽음과 함께 사라졌다는 비래정 현판 이야기부터 금강산 경치를 구경하느라 하늘나라에 올라가지 못하고 거북등을 가지게 된 토끼, 만물상 계곡에 늘

러갔다 이백년 만에 돌아온 노인들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금강산 이야기를 담아 이야기로 먼저 금강산을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금강산 관련서를 준비중인 출판사는 푸른숲, 김영사 등이다. 푸른숲에서는 1927년 독일의 수도원장인 베버가 쓴 9백매 내외의 금강산 기행문을 빠르면 12월께 출간할 계획이다. 이 책에는 저자가 그린 수채화와 일러스트도 포함됐다. 김영사는 이달 안에 《금강산올가이드북》을 낼 예정이다. 현대측에서 자료를 제공한 이 책은 유래·전설·시를 포함하는 일반적인 내용 외에 등산 가이드, 금강산 유람선 내의 생활 등을 담아 실제적인 관광가이드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가까운 명산이면서도 그간 갈 수 없었다는 한계 때문에 아직까지 금강산 관련 책들은 대부분 옛기록이나 사진집 등 간접 자료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단순한 소개에 중점을 둔 1차적 자료에 불과하다는 아쉬움도 남는다. 새로운 각도에서 금강산을 다루거나 금강산의 최근 모습을 담은 책의 출간이 과제로 남아 있는 셈이다.

— 김연수 기자